

## 교육위원 선거 최악의 부패

### 학운위원 매수 20만~100만원씩 뿌려... 일부 교장·교감도 가세

광주·전남 교육위원 선거가 최악의 부패선거로 치닫하고 있다. 상당수 예비후보들은 조직과 친분을 총동원, 20만~50만원씩을 담은 돈봉투를 살포하며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을 매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1일 후보자 등록 전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지방자치교육법 선거조항은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은밀히 이뤄지는 돈거래를 적발해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광주의 경우 학교운영위원 한 명을 확보하는데 20만~30만원이 든 돈 봉투가 건네지고 있으며, 동료 학교운영위원 3~4명을 모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학교운영위원에게는 50만~100만원이 전해지고 있다. 몇몇

후보들 사이에는 "운영위원 300명 만 확보하면 당선이다. 1인당 50만원씩 1억5천만원이면 된다"는 노골적 돈 살포 계획이 입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2선거구 출마예정인 D씨는 지난 13일 오후 광주 현대백화점 인근 자신의 차 안에서 학교운영위원 한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건네려다 거절당했다. D씨는 이에 앞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학교운영위원에게 20만원을 건넸다가 되돌려 받은 바 있다.

전남 2권역의 경우 구례·곡성 출신의 출마예정자가 없는 가운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가 오가고 있으며, 화순·순천도 돈 봉투가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담양의 한 출마예정자는 학교운영

위원을 만나 "지금은 서로 견제가 심해 돈을 주고 받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선되면 꼭 후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교장과 교감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자신의 학교 운영위원이나 교육계 선·후배에게 자신이 밀고 있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모 초교 교감은 아예 광주 제2선거구(서구·남구·광산구)에 출마하는 B씨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전남도교육위원 후보 C씨는 학교 운영위원 3명에게 고가의 수입 양주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몰지각한 학교운영위원들이 후보들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교육위원 후보 G씨는 "8명의 표가 있다"며 식사비 조로 200만원만 보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불법·부정선거 신고센터(062-227-3612)'를 가동하고 있는 '광주·전남교육연대' 최은순 정책실장은 "▲사전선거 운동 ▲금품·향응 제공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출마예정자는 물론 학교운영위원들이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 J씨는 "검·경의 본보기 수사가 나와야 할 시점"이라며 "누누누가 돈을 쓰고 다닌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사직당국만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이스라엘 지상군 레바논 진격

이스라엘 지상군이 20일 시커먼 포연 속을 뚫고 남부 레바논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일부터 남부 레바논에 대한 지상 공격을 감행, 헤즈볼라와 전투를 벌였다. /연합뉴스

### 아시아 최대 태양광발전 영광에 건설

영광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 영광군 삼산리와 계마리의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 1만8천여평 부지에 최대 3천kW(3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인 영광솔라파크 건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21일 영광군(군수 강종만)과 투자합의서(MOA)를 체결한다. 영광솔라파크 건설에는 총 233억원이 투입되고 2008년 3월 완공된다.

영광솔라파크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1천5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일본의 키요타 태양광발전소(1.5MW)의 두 배에 이르며 단일설비로는 아시아에서 최대다. 한수원은 영광솔라파크가 완공되면 연간 854의 석유 대체효과와 연간 2천123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北, 면회소 건설도 중단

#### 李통일 "대북 추가 제재 반대"

북한이 19일 이산가족상봉 및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금강산 면회소 공사를 진행 중인 현대아산의 공사인력을 21일까지 공사 현장으로 부터 철수시킬 것을 통보하는 등 후속 조치를 현실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면회소 공사를 진행중인 현대아산은 "19일 저녁 늦게 북측의 금강산관광회사로부터 금강산 면회소 건설을 중단하고 21일까지 해당 현장에서 인력을 내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현대아산 12명, 현대건설 13명의 직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 120여명 등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

으며, 이들은 현재 공사 작업을 멈추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금강산 면회소는 연면적 5천900평에 지하1층, 지상12층 규모로 현대아산과 현대건설이 조달청으로부터 공동 수주해 건설하고 있으며, 공사는 전체 공정의 23% 가량이 진행된 상태다.

한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제사회와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태도는 잘못됐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압박과 제재를 통해 이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지역 與 국회의원들

## 박광태 시장 고소

열린우리당 소속 7명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0일 박광태 광주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지역 정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양형일·염동연·정동채·지병문·강기정·김태홍·김동철 의원 등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은 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의 예산 확보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일 오후 박광태 광주시장을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 R&D(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여당원이 반대했다'는 발언과 관련, 이미 여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여당 국회의원과 박 시장 간 갈등

의 골이 이처럼 깊어지면서 2006년도 광주시 예산 확보나 문화중심도시 건설 등 광주지역 주요 현안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사소한 감정싸움에 휘말려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높다.

광주지역 여당 의원들은 이날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박 시장이 지난달 22일 모방송국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의 예산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말하고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지역국회의원들이 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의 예산을 주지 못하게 했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5월말까지 R&D특구 지정 발언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을 대신해 양형일 의원의 보좌관인 이진씨(오른쪽)가 20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검 종합민원실에 박광태 광주시장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포해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중앙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와관련 지난 6월말 열린우리당 조영택 시장 후보가 선거기간 중 지역 일간지에 허위사실을 광고로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광주 시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손잡고 협력해야 할 주역들이 고소·고발전에 휘말려 문

화중심도시 건설과 일자리 창출 등 광주시의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꺼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 하루 빨리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바람이다.

광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광주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하루 빨리 화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캉스 특집 13~16면

후원학원 등록 6.6년 역사상 최장  
**남부대학교**  
 http://www.namj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 062-970-5000-9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am.ac.kr  
 ▶ 상담전화: 065-5051 ▶ T: 065-360-5000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 정정: 1977-7300 FAX: 1977-4802